

○ 여성 취업에 관한 단상 ○

실력있는 여자가 매력도 있다

최 윤 희

현대방송 홍보국장



프롤로그

지난해 중국 북경에서는 세계 여성대회가 열렸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6만여 명이 '여성'이라는 공동테마로 자리를 같이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대회에 한국 여성계에서는 600여 명의 정부, 비정부 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10대 방안'을 발표, 지금 현재 실천단계에 있다. 또한 최초의 여성대사, 최초의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위원 당선, 최초의 여성시장 탄생, 그리고 15대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증가 등 획기적으로 한국

여성의 위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이 더 살기좋은 사회라는 인식이 한국인의 내부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를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GNP 15위로 선진국 대열에 접근해 있는 우리나라는 남녀 평등지수에서 130개국 중 37위이다. 그러나 여성 권한 척도에서는 116개국 중 고작 90위다. 이것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기 때문이다. 세분해서 살펴본다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제14대 2%, 제15대 3%인 반면 노르웨이·핀란드 39%, 스웨덴 34%, 쿠바 23%, 미국 10% 등이다. 여성 장·차관 비율은 5%인 반면, 미국 11.7%, 도미니카 25.6%, 바하마 24%, 노르웨이 20.3%이다. 이 정도로 아직

은 세계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급격한 물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여성의 감성과 유연성이 더욱 요구될 뿐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 생활양태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역할보다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직장에서 더 이상의 성별 분류는 사라져야 한다. 여성, 남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인이 있을 뿐이다.

3대 악조건 속에서 카피라이터로 사회의 첫 스타트라인을 끊었다

여자는 3번 태어난다. 첫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을 향해, 두번째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향해, 세번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향해. 이 3번의 출생은 저마다 고유의 가치를 지녔기에 고저강약을 쉽게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다 소중한다.

그러나 첫번째 탄생은 아직 어려서 홀로서지 못한다. 세번째 역시 남편이라는 파트너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번째의 탄생만이 자주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기자신의 실력만으로 세상의 장대높이뛰기에 뛰어 오르는 것. 그래서 사회라는 거대한 신대륙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 여자는 비로소 취업 후에야 독립된 '1인'으로 똑바로 선다. 그러나 나의 출발은 다소 특별했다.

38세 -

여자 나이 38세라면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나이. 아니 어찌면 '그대 아직 꿈꾸고 있

는가'의 작가가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를 쫓아가다 보면 끝지점점에서 만나게 될 나이가 바로 38세다. 흔히 그 나이면 문제 많은 중년여자로 불러 푸른색, 청초, 열정 등의 단어들보다는 우울증, 고혈압, 콜레스테롤, 갱년, 방황, 위기 등 이런 단어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된다.

그런 나이 38세에 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힘에 의해 카피라이터가 되었다. 물론 운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기혼여성들을 공개채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정책발표를 했다. 나는 결혼생활 내내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여기저기 강의는 즐기치게 찾아다니며 독학(?)중인 셈이었다.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것, 뭔가 새로운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는 것, 그런 것들만큼 기쁜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날마다 마주치는 똑같은 사물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을 느끼며 신기해 하는 것이 못 말리는 나의 특징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은 우리나라에 아직 카피라이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이전이다. 광고회사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고 취업을 앞둔 여대생 희망직종 순위 1, 2위로 꼽히기도 하는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는 확실히 이 시대의 매력있는 유망직종이며 미래사회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한 스타 직종이다. 그런 만큼 아무런 직장경험도 없던 나에게 그것은 더 큰 각고의 노력을 요구했다. 탁월한 창조력으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벼랑 위에 서있는 느낌을 만끽해야 했다. 좌절과 절망의 틈새에서 나의 한계와 끝없이 싸웠다. 그러나 나는 오기가 생겼다. 인간 최윤희를 제대로 알리자.

이런 식으로 도중하차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말하자면 나는 3대 악조건 속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1. 여자라는 것
2. 미인이 아니라는 것
3. 게다가 결혼까지 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개성시대. 다리 짧은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당당히 걸어갈 때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 쌍꺼풀 지지 않은 눈이 그 속에 담긴 지성으로 인해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난 틀렸어, 난 못해라고 쉽게 포기하고 적당주의로 추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것. 나는 나의 악조건을 이렇게 극복했다.

1. 여자라는 항목의 극복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뛰어넘었다. 최소한 남자의 1.5배는 일해야 간신히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

<1.5=1>

일을 피하지 말고 직선으로 나아가 쫓히는 기분으로 정정당당하게 덤벼야 한다. 모 자동차 광고에 등장한 흑표범의 슬로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질주본능’

일을 향해 질주할 때 가슴 속에 불꽃처럼 피어나는 희열이 있다.

2. 미인이 아니라는 항목은 이렇게 극복했다.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의 화초가 아니라 약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다. 직장에서의 약초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남자에 비해 물리적인 힘은 뒤질지 몰라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끈기는 어느 것보다도 비할 수 없다. 요즘은 특히 IQ보다 EQ가 더 중요시되는 시대이기에 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3. 게다가 결혼까지 한 것은 모든 직원들의 카운슬러가 되어줌으로써 극복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친지·동료간의 풀리지 않는 갈등, 심지어는 아내 흉까지 내게 와서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나의 결혼생활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 혹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바란 것이리라.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몇 도의 온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도 알고보면 사람 커뮤니케이션의 장.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세대와 세기를 뛰어넘는 특별한 몇몇 초인을 제외하고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능력은 엇비슷하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차이하게 하는 것일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관계’의 결과다.

인간관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몇 도의 온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현실은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직장여성들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힐러리가 될 것인가, 마를린 몬로가 될 것인가?

물론 60억 인류는 어느 한 사람도 성격이 똑같지 않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의 행동도 다 다르다. 그러나 편의상 나는 5가지의 유

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1. 힐러리 형
2. 마를린 몬로 형
3. 클레오파트라 형
4. 헬렌 켈러 형
5. 마더 테레사 형

- 힐러리는 대통령인 남편에게조차도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여자다. 말하자면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여자라고나 할까? 직장에서든 그런 여자들이 가끔 있다. 나와 함께 입사한 N씨도 싸움닭처럼 상하좌우 가리지 않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던지고 그만두고 말았다. 어떤 경우에도 극약 처방은 반드시 후회될 하게 된다.

싸우는 것은 최후의 극약 처방과 같다. 고저강약, 균형미를 갖춘 완급의 수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 마를린 몬로는 모든 것을 섹스 어필로 해결하려는 여자. 말하자면 일로 승부를 내기보다는 지나치게 여자티를 노출시킴으로써 그럭저럭, 강물따라 한세상 흘러가 볼까 하는 유형이다. 회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흡사 이브닝 파티에 나오는 줄 착각하고 그야말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몸매도 강하게 부각시키고…….

그런 여자들은 진정 직장의 암이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누가 등 떠밀기 전에 스스로 직장을 떠나야 한다.

- 클레오파트라라는 콧대 높은 여자로 유명하다. 치열하게 일할 생각보다는 쓸데없이 자존심만 붙들고 앉아서 아무 것도 아닌 일에도 부르르, 부르르 떠는 여자.

나는 그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자존심이란 콧대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

라고. 자존심이란 자기 자신이 아웅다웅, 눈 흘겨가며 챙기는 노획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챙겨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존심은 본인이 있는 눈앞에서만 추켜 세운다고 세워지는 불량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것은 곧 와르르 무너질 가건물에 불과하다고.

진실로 자존심이 있는 여자라면 자기 할 일만 소극적으로 하는 여자가 아니라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두루두루 찾아 열심히, 즐겁게 하는 여자다.

- 헬렌 켈러는 3중고를 이겨낸 불굴의 여자. 우리들 직장에서든 간혹 눈에 띄이는 유형이다. 숨은 그림처럼 책상에 앉아서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내는 여자들.

3D에 1D(Dreamless)까지 추가하여 4D의 조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입 병긋하지 않고 오롯하게 자기 일을 잘 해 내는 여자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에 더 헌신적인 성녀급 여자.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의 일에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는 가슴 넓은 여자도 희귀하긴 하지만, 천연기념물처럼 아주 드물게 존재한다.

겨울 들판을 달리다 보면 가냘픈 다리 하나로 우뚝 서있는 하얀 백조·두루미처럼 성스러운 여자들.

편의상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유독 어느 쪽이 최상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어떨까?

WHAT이 아니라 HOW가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묻곤 한다. 생 텍취페리는 『어린왕자』에서 우리를 향해 이상하다고 말한다. 왜 어른들은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가 아닌가? 그렇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비록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가슴 속에 향기로운 장미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 넓고 넓은 호화빌라에 살면서 영국제 슬리퍼를 신고 이태리 대리석 위를 사뿐 사뿐 걸으면서도 인생은 고해라며 한숨만 쉬는 사람도 있다. 또 불란서 향수를 온몸에 바르고 하루 한 끼씩은 반드시 호텔 식당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먹고 살아도 악취만 가득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어떤 대학, 어떤 직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학과, 어떤 업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령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치 않는 학과에 진학한 사람이 있다 해도 자기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향해 4년 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된다. 그것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 줄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직장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을 국민애창곡처럼 되뇌이게 될 것이다.

꽃병과 찻잔의 차이

생각해 보라. 목이 긴 꽃병에 꽃을 꽂지 않고 차를 담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찻잔에 꽃을 꽂아 놓는다면 깨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수영 코치가 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수학 교사가 되기를 강요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잣나무에게 너는 왜 백합이 아니냐고 샷대질하고 국화에게 너는 왜 사과나무가 아니냐고 눈 흘기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있는 분야를 어려서부터 잘 구분해내야 한다. 그래서 남 보기엔 아무리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신은 넘치도록 재미있고 행복한 일, 남이 보기엔 하찮아 보여도 자신이 느끼기엔 썩 멋있어 보이는 일.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런 일을 바로 자기만의 고유모델로 승격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모든 제품에 고유모델이 있듯 자기만의 독특한 업무 스타일을 가지라는 것. 똑같은 일을 시켜도 A, B, C 다 각각 다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사에 툭툭 거리는 사람이 있고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티켓을 행운의 초청장으로 만드느냐, 비극의 부고장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이기에 적극적인 의지와 현명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우월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금년도 미국의 미래지도력 재단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가 유난히 눈길을 끈다. 기획력, 문제해결 능력, 아이디어 창출 능력 등 31개 항목에서 여성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한다.

1996년 현재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고작 2%인 현실에 대해 이 연구 보고서는 하나의 경종이 되었다.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여성의 우월성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을 창당하여 활발한 인권운동을 펼친 패트라 켈리. 원자력 시대의 잔 다르크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녀는 반핵 환경운동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 암퇴치 운동 등 21세기를 움직인 1천 명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프랑스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다니엘 미테랑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남편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동안에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맞서 인권단체인 프랑스 자유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일했다. 동유럽에서 남미까지 활동무대를 넓혀 일해 온 그녀는 어떤 유권자의 구속도 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롭다. 나의 도덕적 양심, 나의 확신만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외친 그녀는 비단 여성뿐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며 자유의 한계에 도전, 71세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또 인류학자 제인 구달 박사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독특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여성으로 꼽힌다. 그녀는 26세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야생 침팬지와 함께 살면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녀는 남성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동물과의 동거생활로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탁월한 여성들은 많지만, 지면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이만 그친다.

에필로그

에베레스트엔 수많은 봉우리가 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어쩌면 그 많은 봉우리 중 하나에 오르기일지도 모른다. 앙드레 지드는 말했다. 젊은이는 비록 부서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향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그렇다. 우리는 신대륙, 새로운 봉우리를 찾아 날마다 떠나야 한다. 미지에의 탐험처럼 가슴 설레는 여행은 없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다. 날마다 신생아된 기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똑같은 일도 새롭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진실과 성실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풀리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자신이 신이 아닌 것을 도저히 못 참아 ‘신은 죽었다’라고 목청을 높인 니체. 그는 한없이 오만해서 여자를 남자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니체가 어느 날 루 살로메를 보고 외쳤다. ‘저기 한 줌의 인식이 걸어오고 있다. 그녀는 여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라고.

루 살로메가 니체를 굴복시킨 것은 미모가 아니라 실력. 니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실력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을. 아마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라면, '실력=매력'이라는 등식이 어떤 수학공식보다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울보는 시간보다 책보는 시간이 훨씬

더 여자를 매력있게 해 줄 것이다. ♣

최윤희/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현대방송 홍보국장으로 재직중이며, 카피라이터로 11년 동안 활동했다. 『사람풍경』, 『섬서 99도로 너를 사랑함』, 『때로는 벼룩벼룩 걷고 싶어』 등의 산문집을 발표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